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4 5

지금 싱가포르 상공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에 열이 나는 듯 합니다.

오늘이 12 월 5 일 월요일로 오늘부터 9 일까지 5 일간 싱가포르에 머물 예정입니다. 어쨌든 내일 아침까지는 몸의 컨디션이 회복되어 스케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보니 그저께 후쿠오카(福岡) 시민 크리스마스 모임에서 돌아온 이후로 목이 좀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사이타마(埼玉)에서 시민 크리스마스를 마치고나니 콧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티슈 상자를 들고 기내에 올랐습니다.

'화분증인가? 아니면 무슨 알레르기인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지만 아무래도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돌이켜생각해보니 지진 재해 이후로 줄타기 같은 스케줄의 연속이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덕분에 잘 견디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피로가 지금 여기에서 터진 것인지, 정말 감기인지 아니면 동장군이 찾아왔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몸이 달군 쇠덩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행하는 8 시간 동안에 완치되어 싱가포르 도착시에는 활기차게 내릴 수 있었으면 딱 좋겠습니다.조금전에 기분전환으로 기내 영화를 보려고 시도해보았지만 제 마음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지진 재해를 당하고 난 이후로는 신문도 전혀 읽을 수 없게 되었고 텔레비전을 켜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켜도 기분이 우울해지기 때문에 곧 꺼버립니다. 아무래도 제게는 아직 보거나 읽거나 할 기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진 재해 이전에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현상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한계점을 넘어선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제선에 탑승해도 영화를 보고자 하는 기력이 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편도를 이용할 때도 영화를 두편이나 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제 속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진 재해를 극복해 나가거나 내년 봄까지 고령의 노인분들과 건강상태가 안 좋은 분들을 위한 아파트 그리고 희망을 상징하는 교회건축을 하려는, 아니 해야만 하는 힘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인지요? 이외의 것에 소모할 여력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사춘기에는 때때로 정신없이 자고 있는 것도 신체가 수면을 필요로 하고 있음과 동시에 정신없이 잘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의 제 자신에게는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만일 자신의 내면에서 'Empty Lamp'가 점멸하고 있다 해도 너나 할 것 없이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힘써 견디며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지진재해 속에 내던져진 한사람 한사람이 경고를 알리는 램프가 점멸하고 있는 상태로, 믿을 수 없는 이 현실 속을 120 퍼센트의 에너지를 쥐어짜며 아주 열심히 견디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응원해 주시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싱가폴에 온 지도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2월 9일 밤 9시반입니다. 조금전에 일본인 회관에서 밤 강연을 마치고 일로공항을 향하고 있습니다. 심야 편으로 귀국할 예정입니다. 염려해 주신 감기는 그 후 열이 심하게 올라 싱가포르에 도착해서는 바로 아무 것도 입에 대지 않은 채 자리에 누웠습니다. 깨어나 보니 아침까지 정신없이 잤습니다. 땀을 흠뻑 흘려서 몸이 가벼워 졌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었습니다.

스케줄을 예정대로 잘 마칠 수 있겠는지 마음 졸이며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바라던 대로 회복되었습니다. 소원이 정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배후의 기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제 몸은 회복을 향해 달렸고 다음 날부터는 예정대로 무난히 일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싱가폴에서 실재 활동을 한 3일간, 스케줄에 짜여진 일정표대로 차례 차례로 일을 마치고는 그대로 귀국편에 올랐습니다. 짧은 체류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집회나 방문지에서 여러 싱가포르 사람들이 '피난 일기를 처음부터 보고 있습니다'라며 말을 건네오셨습니다. 바다 저편에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전부터 싱가폴은 일본의 지진 재해를 위해서 특별한 지원을 해 주셨다고는 듣고 있었는데, 바로 그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여행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희들은 얼마나 많은 나라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살아온 것인지요.

이러한 저희들은 이 지진재해를 잘 대처해 왔다고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지진재해 속에서도 아주 곳곳하게 살아남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거센 세파를 계속해서 여행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2 월 9 일(금) 싱가폴 출발 나리타편에서
사토 아키라(佐藤彰)